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를 중심으로-

황혜민¹, 김주옥^{*}
¹부천대학교 간호과

Influence of Job Stress, Coping Strategies on life satisfaction in long-term care workers -focused in Gyeonggi-do-

Hyemin Hwang¹, Juok Kim^{*}

¹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을 파악하고 이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요양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5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연구자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 후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수는 시설형태($F=4.11, p=.020$)였으며, 생활만족도와 업무스트레스는 음의 관계($r=-.46, p<.001$), 대처전략과는 양의 관계($r=.21, p=.040$)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업무스트레스, 대처전략, 시설형태였으며 24.0%의 설명력을 가졌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생활만족도에서 업무스트레스와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무시설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차별화된 직무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job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in long-term care workers. A cross-sectional study was used to study 111 long-term care workers in Gyeonggi-do.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the workers, an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1 February and 30 March 201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stress scale, and a life-satisfaction index. The major findings were: 1) The type of facility was a significant factor in life satisfaction of long-term care workers ($F=4.11, p=.020$). 2)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job stress($r=-.46, p<.001$), coping strategies($r=.21, p=.040$) and life satisfaction. 3)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job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type of facil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long-term care workers.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job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life satisfaction in long-term care workers.

Keywords : long-term care workers, job stress, coping strategies, life satisfac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과학과 의
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4년 현재 12.7%이며 향후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3%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고령화 사회를 먼저

*Corresponding Author : Ju-Ok Kim (Bu-cheon Univ.)

Tel: +82-32-610-0833 email: amicaa@bc.ac.kr

Received June 16, 2015

Accepted September 11, 2015

Revised (1st August 13, 2015, 2nd September 4, 2015, 3rd September 9, 2015)

Published September 30, 2015

경험한 서구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노인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정책과제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2008년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2].

요양보호사는 중풍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3] 노인요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부터 소정의 교육을 통해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약 46만명이며 2011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는 약 21만명으로[4]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 통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 [5]를 경험하거나 성희롱[6]이나 신체폭력[7], 조직 내 다른 직종과의 역할 갈등[8] 등의 신체,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관심이 노인요양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

그러므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급증할 수밖에 없는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행복감이자 개인의 안녕 상태를 아우르는[9] 생활만족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스트레스는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정적 요인이나 스트레스로[10]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반응 능력간의 근본적인 불균형에 대한 지각이므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11].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긴장을 주어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는 피로, 두통,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 뿐 아니라 불안, 우울, 긴장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져와[12] 직업적 소진과 개인 생활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트레스에 대해 인지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Lazarus와 Folkman[13]은 환경과 내적 요구간의 갈등을

다루기 위한 노력 즉 대처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처전략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감소시키거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제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14] 스트레스 중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을 확인함으로써 노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적 중재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생활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생활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생활만족도 관계를 확인한다.
- 5)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생활만족도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예측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락한 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Cohen[15]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5, 회귀분석 효과크기의 값 0.2, 검정력($1-\beta$)=.95, 예측변수 3개(업무스

트레스, 대처전략, 시설형태)로 선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인원은 88명으로 산출되었다. 총 122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이 중에서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극단 값에 치우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111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 유무, 교육 정도, 결혼상태의 5가지와 직업관련 특성은 요양보호사 전 직업, 근무하는 시설형태, 고용형태, 근무형태, 근무기간, 급여 수준, 담당 수발 노인 인원의 7가지로 구성하였다.

2.3.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igot[16]가 표준화시킨 생활만족지수(Life Satisfaction Index Well-Being: LSE-W)를 Kim, Kim, Lee와 Min[1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여가활동시간, 대인관계, 직무수행, 생활환경적응, 가족관계의 총 5개 영역 2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0$ 이었다.

2.3.3 업무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는 Gu와 Kim[18]이 개발한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업무량, 역할갈등, 업무책임의 3가지 영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자주 심하게 느낀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Gu와 Kim[1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5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10$ 이었다.

2.3.4 대처전략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 Lazarus와 Folkman[9]이 개발한 The Way of Coping Questionnaire(WCQ)을 Han과 Oh[19]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제중심 영역, 희망적 관점, 무관심 영역, 사회적 지지탐색 영역, 긍정적 관점 영역, 긴장해소 영역의

5가지 영역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항상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전략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과 Oh[19]의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0$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0$ 으로 나타났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자료의 익명성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이후 언제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 이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았다.

2.5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3곳의 재가센터,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요양원과 재가센터,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장의 허락을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받았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다.

2.6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 주요 변수들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11명의 대상자 중에서 연령은 50-59세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비율이 99.1%(110명)이었다(Table 1).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76.7%(80명)이었으며 교육 정도는 고졸 이상이 56.7%(58명)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이 80.0%(79명)으로 월등히 높았다. 현재 요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65.7%(73명)였으며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이 38.9%(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교대 근무가 51.3%(57명)이었다. 근무경력은 2년 이상이 39.8%(44명)이었으며 급여수준은 81-160만원이 70.7%(70명)로 가장 많았다. 60.0%(61명)가 수발해야 하는 담당 노인의 수를 1~4명이라고 하였다.

3.2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생활 만족도 정도

대상자가 인식한 업무 스트레스는 1점에서 5점으로 구성되며 평균 점수는 2.71점(SD=0.62)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처전략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범위를 가지고 평균점수는 2.72점(SD=0.22)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범위를 가지고 평균 3.39점(SD=0.51)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다(Table 3).

업무 스트레스는 시설형태, 근무형태,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업무스트레스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경우($F=9.69, p<.001$), 2교대 근무인 경우($F=3.14, p=.048$), 급여수준이 81-160만원인 경우($F=3.70, p=.029$)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전략과 생활만족도는 시설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처전략은 재가센터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F=3.17, p=.047$) 생활만족도는 재가센터3.57점(SD=0.49)으로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3.29점(SD=0.49), 요양원3.12점(SD=0.49)순으로 나타났다($F=4.11, p=.02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11)

Variables	Categories	N(%)
Age(yrs)	40-49	20(14.4)
	50-59	51(48.9)
	≥60	40(36.7)
Gender	Male	1(0.9)
	Female	110(99.1)
Religion	None	31(23.3)
	Yes	80(76.7)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34(30.0)
	High school	58(56.7)
	Above college school	19(13.3)
Marital status	Unmarried	9(2.2)
	Married	79(80.0)
	Live alone(Divorced, Bereaved)	23(17.8)
Previous job	None	44(39.6)
	Caregiver	11(9.9)
	Etc	56(50.5)
Type of facility	Home care center	20(18.0)
	Care facility	73(65.8)
	Long term care hospital	18(16.2)
Employment type	Full time work	42(38.9)
	Fixed term work	33(28.9)
	Part time work	36(32.2)
Working pattern	2 shifts	57(51.3)
	3 shifts	12(10.8)
	Etc	42(37.8)
Duration of working	≤1 year	42(37.8)
	≤2 years	25(22.6)
	Above 2 years	44(39.6)
Salary (10,000 won)	≥80	32(27.8)
	81-160	70(70.0)
	≥160	9(2.2)
Number of patients (person)	1-4	61(60.0)
	5-9	34(30.0)
	≥10	16(10.0)

3.4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생활 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4). 생활만족도는 업무 스트레스($r=-.46, p<.001$)와는 음의 상관관계, 대처전략($r=.21, p=.040$)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일반적 특성 중에서 생활만족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시설형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5). 독립변수 사이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과 2.0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모형의 F값은 6.7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²의 값은 .2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변수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4.0%였다. 각각의 변수들을 볼 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업무 스트레스($\beta=-.34$, $p<.001$), 대처전략($\beta=.32$, $p=.001$), 시설형태($\beta=-.17$, $p=.005$)였다.

4. 고찰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생활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예측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111)

Variables	Mean±SD	Range
Job stress	2.71±0.62	1.27-4.07
Workload	2.87±0.69	1.25-4.50
Role conflict	2.62±0.67	1.00-4.44
Responsibilities	2.76±0.68	1.50-4.50
Coping style	2.72±0.22	2.18-3.40
Problem-focused	2.95±0.26	2.38-3.75
Social support	2.72±0.28	2.14-3.29
Positive interest	3.02±0.39	2.25-4.00
Hopeful-focused	2.66±0.47	1.00-3.80
Relieve tension	2.29±0.51	1.00-3.33
Unconcern	2.49±0.46	1.33-3.50
Life satisfaction	3.39±0.51	2.26-5.00
Activities	2.63±0.82	1.00-5.00
Interpersonal	3.55±0.64	2.00-5.00
Job performance	3.63±0.55	2.50-5.00
Adaptation of life	3.39±0.62	1.86-5.00
Family relationship	3.62±0.62	1.80-5.00

본 연구에 참여한 111명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2.71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Yu의 연구[20]에서 나타난 3.26점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21]의 연구에서 나타난 4.0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선행연구에서 한 곳의 근무 시설에서 자료수집을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근무하는 시설형태는 재가센터, 요양병

원, 요양원으로 다양하였으며 이들의 근무지에 따라 업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가센터에 비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Nam의 연구[22]에서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시설요양보호사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즉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이 주로 1, 2등급의 중증 노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재가요양보호사에 비해 시설요양보호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신체수발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 업무스트레스 정도가 다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경우 중증 노인환자를 24시간 수발해야 하기 때문에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형태가 많아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요양보호사의 시설형태와 근무형태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는 반복, 비교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처전략의 평균점수는 2.7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Oh의 연구에서[23] 중환자실 간호사의 2.66점, 일반병동 간호사의 2.62점에 비해 약간 높은 점수로 나타나 이들이 간호사에 비해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Oh의 연구에서[23] 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대처전략 점수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이 Oh의 연구[23] 대상자보다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처전략은 연령, 하부영역에서 보았을 때 긍정적 관심의 평균점수가 3.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긴장해소의 평균점수가 2.29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이들이 긍정적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대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운동, 취미, 휴식 등의 방법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처전략의 하부영역 중 문제 중심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함과 동시에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많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시설형태에 따라 대처전략의 점수 차이가 있었는데 재가센터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요양원에 근무하는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전략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3. Job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Life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Variable	Categories	Job stress			Coping strategies			Life satisfaction		
		M(SD)	t/F	p	M(SD)	t/F	p	M(SD)	t/F	p
Age	40-49	2.86(0.45)	0.75	.476	2.67(0.21)	2.34	.102	3.31(0.37)	0.48	.623
	50-59	2.73(0.51)			2.69(0.24)			3.36(0.51)		
	≥60	2.62(0.78)			2.79(0.17)			3.46(0.57)		
Religion	None	2.77(0.58)	0.58	.560	2.67(0.19)	-1.14	.257	3.40(0.52)	0.15	.881
	Yes	2.68(0.63)			2.73(0.22)			3.38(0.51)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2.74(0.63)	0.17	.844	2.78(0.22)	1.43	.245	3.46(0.64)	0.36	.699
	High school	2.71(0.62)			2.69(0.20)			3.35(0.44)		
	≥College	2.62(0.63)			2.75(0.25)			3.39(0.48)		
Marital status	Unmarried	3.22(0.34)	0.79	.457	2.50(0.06)	1.13	.328	3.43(0.18)	0.26	.773
	Married	2.68(0.63)			2.73(0.21)			3.37(0.51)		
	Live alone	2.75(0.55)			2.72(0.24)			3.47(0.55)		
Previous job	None	2.72(0.70)	0.35	.700	2.78(0.20)	2.47	.090	3.53(0.62)	2.80	.066
	Caregiver	2.95(0.43)			2.69(0.27)			3.09(0.48)		
	Etc	2.67(0.57)			2.68(0.22)			3.30(0.39)		
Type of facility	Home care center	2.37(0.58)	9.69	<.001	2.78(0.20)	3.17	.047	3.57(0.49)	4.11	.020
	Care facility	2.91(0.57)			2.69(0.21)			3.29(0.49)		
	Long term care hospital	3.02(0.25)			2.58(0.21)			3.12(0.39)		
Employment type	Full time work	2.87(0.52)	2.65	.076	2.72(0.23)	0.69	.503	3.41(0.43)	1.55	.219
	Fixed term work	2.68(0.74)			2.69(0.17)			3.25(0.62)		
	Part time work	2.52(0.58)			2.75(0.23)			3.49(0.48)		
Working pattern	2 shifts	2.84(0.55)	3.14	.048	2.71(0.22)	1.21	.302	3.35(0.50)	0.42	.660
	3 shifts	2.64(1.23)			2.89(0.39)			3.34(0.99)		
	Etc	2.52(0.61)			2.71(0.19)			3.45(0.49)		
Duration of working	≤1 years	2.67(0.67)	0.28	.760	2.63(0.18)	1.99	.142	3.36(0.58)	1.68	.192
	≤2 years	2.65(0.72)			2.67(0.21)			3.23(0.41)		
	≥2 years	2.76(0.51)			2.78(0.24)			3.49(0.46)		
Salary (10,000 won)	≤80	2.50(0.51)	3.70	.029	2.72(0.20)	0.17	.837	3.53(0.48)	1.60	.208
	81-160	2.80(0.63)			2.73(0.22)			3.34(0.52)		
	≥161	2.00(0.85)			2.63(0.12)			3.11(0.15)		
Number of patients (persons)	1-4	2.60(0.62)	2.41	.095	2.73(0.21)	0.31	.736	3.41(0.52)	1.37	.259
	5-9	2.80(0.61)			2.70(0.23)			3.44(0.56)		
	≥10	3.03(0.51)			2.63(0.19)			3.112(0.1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Job stress, Coping style and Life satisfaction (N=111)

Variable	Job stress	Coping style	Life satisfaction
	r (p)	r (p)	r (p)
Job stress	1		
Coping style	-.11(.267)	1	
Life satisfaction	-.46(<.001)	.21(.040)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N=111)

Variable	B	SE	β	t	p	F (p)
Constant	3.47	.68			<.001	6.79
Job stress	-.34	.09	-.41	-3.89	<.001	(<.001)
Coping style	.32	.29	.14	1.44	.001	
Type of facility	-.17	.11	-.07	-0.64	.005	
Adj. R ² =.24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수는 3.39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 보았을 때 직무수행에서 3.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가활동시간에서 2.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Kang의[24] 연구에서 나타난 3.33점과 비슷한 결과이다. 특히 Kang의[24] 연구에서 하부영역 중 직무수행에서 3.54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여가활동시간 2.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의 대다수가 여성 집단으로 직장생활로 인해 여가시간의 활용이 어려운 반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내면적인 만족감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기존직업을 볼 때 절반 정도가 전업주부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절

반 이상이 50대이므로 이들이 여가활동의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50대의 연령대에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와 업무 스트레스($r=-.46, p<.001$)는 음의 상관관계, 대처전략($r=.21, p=.040$)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업무 스트레스($\beta=-.34, p<.001$)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고 뒤를 이어 대처전략($\beta=.32, p=.001$)과 근무시설($\beta=-.17, p=.005$)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처전략을 높여주는 중재가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무엇보다 시설형태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측적 상관관계 조사연구로서 한 지역의 대상자들을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특히 인구학적 요인 중 남성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매우 낮아 성별에 따른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시설형태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여 시설형태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대처전략, 생활만족도 정도에 대해 확인하고자 시도된 예측적 상관관계 조사연구로서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심리사회적 중재 프로그램에 업무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설형태도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요양보호사의 생활만족도 상승을 위해서는 재가센터,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이 시설형태별로 적합하고 차별화된 중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적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남성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전략을 높일 수 있는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tatistics of elderly, 2014 [Internet] . Available From: <http://sgis.kostat.go.kr/publicmodel>. (assessed March 10, 2015).
- [2] Y. G. Lee., "The empirical study of Job satisfaction impactor's indicators of long-term care worker for the elderly",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6(3), pp. 137-161, 2012.
- [3] J. D.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geriatric care help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1), pp. 225-235, 2011.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1.11.1.225>
- [4] M. S. Park., S. M. Kang., "Demand Prospect of Professional Workers in Execution of the Elderly's Long-Term Care Insurance -Nurse, Social Welfare, Care Probation Professional workers-",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17(3), pp. 423-440, 2010.
- [5] B. R. Hwang., K. H. Youn., J. Y. Lee., J. H. Kang., E. K. Yoo., "An exploratory study on self-perceived symptoms and pain-inducing factors of musculoskeletal disease among care worker in residential setting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0(1), pp. 69-100, 2014.
- [6] J. S. Kim., H. S. Kim., K. H. Kim.,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Coping Behaviors among Caregivers in Nursing Home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5(1), pp. 21-31, 2013.
- [7] E. Y. Lee., H. S. Kang., K. H. Kim., K. S. Park., "Caregivers' Experience of Violence and Coping with It in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3(2), pp. 134-143, 2012.
- [8] M. R. Lee.,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stress and mental fitness of care provide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8), pp.

215-223, 2012.

[9] I. McDowell., C. Newell.,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0] C. L. Cooper., J. Marshall., "Occupational sources of str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ing to coronary heart disease and mental il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49(1), pp. 11-28, 1976.
DOI: <http://dx.doi.org/10.1111/j.2044-8325.1976.tb00325.x>

[11] G. Blau.,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job stress, social support, service length, and job strai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7(2), pp. 279 - 302, 1981.
DOI: [http://dx.doi.org/10.1016/0030-5073\(81\)90050-7](http://dx.doi.org/10.1016/0030-5073(81)90050-7)

[12] W. E. Broadhead., D. G. Blazer., L. K. George., C. K. Tse., "Depression, disability days, and days lost from work in a prospective epidemiology survey", JAMA. 264, pp. 2524-2528, 1990.
DOI: <http://dx.doi.org/10.1001/jama.264.19.2524>

[13] R. S. Lazarus.,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York: Springer, 1984.

[14] I. H. Yi., "Effects of stress and coping on body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4(1), pp. 80-93, 1999.

[15]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NewYork: Academic Press. 1988.

[16]A. Bigot., "The relevance of American Life Satisfaction indices for research on Brithsh subjects before and after retirement.", Age and Aging. 3, pp. 113-121, 1974.
DOI: <http://dx.doi.org/10.1093/ageing/3.2.113>

[17]Y. D. Kim., H. S. Kim., K. H. Lee., C. Lee., B. K. Min., "Life satisfaction Index and Correlated Variables Among Psychiatric Patients.", Ching-Ang Journal of Medicine, 13(3), pp. 407-415, 1988.

[18] M. J. Kim., M. O. Gu., "The Development of the Stress Measurement Tool for Staff Nurses working in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pp. 28-37, 1984.

[19] K. S. Han., G. S. Oh., "Stressful Life Events, Health Symptoms, Social Support and Coping/in Early Adolescents", Journal Korean Academy of Nursing. 20(3), pp. 414-429, 1990.

[20] S. Y. Yu., "A Study on Job Stress and Satisfaction of the Workers in Long-term care institution.",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1.

[21] J. S. Kang., "The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Resilience on Job Stress and Burnout", Mater's thesis, Inha University, 2015.

[22] H. K. Nam.,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long-term care workers : Comparison research with Home-based care workers", Ma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11.

[23] M. S. Oh., "The burnout and coping type of ICU nurses and nurses working in the General Ward." Ma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24]G. S. Kang.,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daycare teachers-focused on Gwangju, Gyunggido-" Ma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2.

황 혜 민(Hye-Min Hw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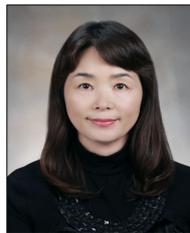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김 주 옥(Ju-Ok Kim)

[정회원]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04년 3월 ~ 2010년 2월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전임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